

07. 인본주의 4

여호수아서 22장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찌니라 하고"

신명기 19장 9절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 즉, 신앙에 개한 왜곡된 이해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고, 자기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고 오히려 본인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기 임의대로 행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을 따르는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 중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다림줄에 따라서만 행해야 의미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들(ways)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길에 대한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리가 자기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으며 또 어떻게 신앙의 타락의 과정과 연결이 되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 즉, 자기의 길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인가? 예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자기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길?

첫째, 하나님의 큰 명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2장 5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에 두지파 반이 머물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여자들은 거기에 놔 두지만 남자들은 다 와서 다 싸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 싸워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 다음에 그 두지파 반을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한 첫마디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신앙의 핵심을 말하죠. 보내면서 당부한 첫마디가 이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크게 삼가 아주 주의하여 조심해서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가져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이 뭐냐? 그러면서 명령과 율법을 하나씩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근해져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를 가져라.

그 다음에 셋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정해진 규정과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약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신약에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한 대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역시 말씀 드린 대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변함없이.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고 말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명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니까, 아니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니까? 신명기 6장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 하라."**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도 살펴보고 합시다만,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를 ‘세컨드 로우’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이 앞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보살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저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훨씬 이전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전체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명령을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보면 신명기 6장 17절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도란 말이 영어로 ways, way란 말입니다.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확인하였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두 구절만 대표로 써 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이상인 것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문자적인 순종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규례의 순종은 누구보다 뛰어 났습니다.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도 어김없이 잘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하는 바대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자적인 외부적인 복종은 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 대한 외부적인 문자적인 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지요. 그것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물론 그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라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압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have not walked in my ways(그들이 내 길에 행치 아니하였다.), nor done what is right in my eyes(내 눈에 보기에 옳은 일을 행치 아니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외부적인 복종을 할 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nor kept my statutes and laws as David, Solomon's father, did.(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처럼 내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치 아니하였다.)” 보면 하나님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길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호수아 22장 5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심지어 구약의 명령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구약의 명령,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서,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것,

셋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지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고, 누구보다 철저히 십일조 했고, 누구보다 철저히 금식했고, 누구보다 철저히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암송했고, 누구보다 철저히 기도했고, 누구보다 철저히 구제하고, 누구보다 철저히 금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5:42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기심의 대로 사랑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겁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 나머지는 하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적으로 잘 복종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에 행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길에 행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길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길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3: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

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구절은 잘 아는 구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서 저들을 멸하시려 하셨으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시겠다고, 심지어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 그들이 대신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ways!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나옵시다만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천사의 능력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구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안 가시겠다고 그 말씀을 철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겠다고, 모세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알기를 할진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쪽 성경을 보면서 요즘은 성경공부하기 쉽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찾으려면 성구사전이 있습니다. '길' 하면 쪽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요즘에 컴퓨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프로그램 들어가서 성구검색에서 우리말의 '길' 그러면 막 섞여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NIV성경 들어가서 'ways' 이렇게 치면, 그 길 나온 구절들은 쪽 나옵니다. 그래서 성구검색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 구절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혹은 사람의 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쪽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들면, 하나는 신명기 8:6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도(길)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찌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길에 행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1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되 단순한 외부적인 복종은 부족하다고 그랬죠. 문자적인 복종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경외함과 밀접하게 관련된 게 뭐냐?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복들을 약속하고 계시고, 은혜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차 펑크 날까봐 두려워서 1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 능력과 영원하심.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혹은 그 당시 종교사회가 이해하는 길이 아니라, 그 당시 전통이 이해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길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바예요. 모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조금 들으면 그게 다인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히려 유익을 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부터 '다시 돌아가 구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놀랍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앞에서뿐만 아니라, 열 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는 뭘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셔서 하나

님을 제가 더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앞 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바가 되었으면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 주세요.” 그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5 편 10절 “내가 사십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도 '내 길'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 말이 여러 번 인용되어 있지요.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마음이 미혹되었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를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서 노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손이 부르토고, 목이 갈라지도록, 입술이 부르토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을 거라고요. 왜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길은, 의도는 방주를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집마다 다녔더라면 그 희생은 가상하고 그 중심도 뛰어어나고, 그 열정도 뛰어어나고, 또 그 헌신도 뛰어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합니다.

첫째, 그 아래 첫째, 하나님의 길은 의롭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로 의로우시며” 여기에 행위라는 말이 ways 라는 말입니다. 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ways. 길들이 의로우시다고 했죠. 그런데 왜? 행위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제가 이걸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걸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들을 행위라고 번역했거든요. 시편 103편에서도 그랬고, 원래 길들이라는 단언데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저가 아압의 길로 행하여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 길이 way 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말인데, 이 길, 이 길이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신학적으로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길에 행하면 우리의 행동은 정확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로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감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길에 행하지 않으면 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이 오늘날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이해의 길이라면, 사람의 길이라면 내 행위는 정확하게 사람의 길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길과 행위를, 행동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말하면서 행위라고 번역한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

느냐? 사람의 길을 따라 행하느냐? 자기의 길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동이 나오느냐, 내 길에 합한 행동이 나오느냐 결정됩니다. 우리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 들은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된 것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 행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요, 우리의 머리로 믿는 바를 가지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옳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십니다. 시편77편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네 번째 하나님의 길은 사랑스럽고 신실하십니다. 시편25편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심이어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8-9절)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또한 영원하십니다. 하박국 3장 6절 “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몰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기 NIV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is ways a eternal' 그분의 길은 영원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자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행할 때 영원하신 사랑, 신실하신 은혜, 옳은 하나님의 그 은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타락 할수록 하나님의 길을 옳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 할수록 하나님의 길이 옳다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하면서 에스겔18장25절, 18장29절, 33장20절,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옳지 않다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 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대로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고? 하나님의 길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 무섭고,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인자하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너무 부담스럽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할수록,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어찌 내 길이 옳지 않느냐?” “너희 길이 옳지 않은 게 아니

냐?” 오늘날 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옳고 의롭고 거룩하고 인자하시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영원하십니다.

큰 네 번째, 하나님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주십니다.

신명기 30장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2장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열왕기상3장14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너도 너의 아비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며 “네 나라가 영원 길리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 나라가, 네 가정, 사회가 길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구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훨씬 더 그 이상이라구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같이 가야 진정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부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지켰지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본인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으니까. 임의대로 생각했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혹은 그 가정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여기 선대하신다가 NIV 성경에는 come to help라고 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실거라 그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아래 첫째,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지키라고 그러지. 여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명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게 가능합니다. 살펴본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 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길을 볼지라도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늘 아침 1부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서론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살펴갈텐데 이 과정에서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외국의 목사님이든지 한국의 목사님이든지 혹은 저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길이 제시될 때 그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성령님이 스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뭐라고 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너희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그랬듯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세가 있어야 비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내용만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 입장을 좀 생각해 보셔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혼동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잘못된거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 잘못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내 말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분별력이 생길거라 그말입니다. 제가 1부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 삶의 어떤 대가나 조정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대가나 조정을 치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셔도 사람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보면 제한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7중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지속적인 제한없는 7중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적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 마음의 자세가 없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별되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취주셔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취주셔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먼저 되어져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아래 두 번째입니다.

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살펴본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새물결 선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웁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을 해외로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계시고, 올해는 더 힘쓰라고 다음 주에 중국 다녀와서 그 다음 주에는 필리핀 다녀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웁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수백배, 수천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우리처럼 듣지 않았습니

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영상, 그림을 본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통해서 본다든가, 마음의 감동이 있다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사람의 친구와 대화하듯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하나님의 길에 행함으로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화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화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구했기에 시편 103편 7절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똑같이 모세처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탈출구를 구했고,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먹을 것을 구했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마실 것을 구했고, 물이 써서 못마실 때에는 물이 쓴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고, 적의 위기 앞에서는 도움을 구했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 아하고, 그들이 고작 구한 것은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말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라고 하는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윗!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예요” “혹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고.

그런 다윗이 뭐라고 구했는가? 시편 25편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되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을 듣지 아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을 보십니다.

무엇이나 하면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지식, 참다운 지식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면 하나님의 길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오고, 아무리 머리를 하나님의 길, 말씀을 얘기해도,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세상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묶어 놓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함을 알았다”** 라고.

그전에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두렵더라고요.

사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찾습니다. 찾는데 무엇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하하며”

그러면서 58장 3절에서는 **“저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외친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나? **“너희가 재 가운데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먹지 않**

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들으시기 이전에 행함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말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행함은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지식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조정과 순종이 동반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조정과 순종이 행동으로 동반되지 않고 말로써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구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며, 금식했는데 그것이 삶에서 조정과 순종으로 동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사 5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지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조정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며, 돌이키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 25편 8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놀라웁게 보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 2장 2절~3절, 미가 4장 2절~3절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가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무리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보이사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어느 때 보다 말세지말에 놀라웁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말세지말인 이 때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될 때 어느 때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사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기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짓 신앙체계인 인본주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중에 살펴 보겠습니다만 타락하면 자기의 길에 빠지는데 자기의 길에 빠진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 우리 가운데 너무나 팽배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길을 따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신앙 생활이 풍부한데 그러한 왜곡된 신앙 이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모든 승리와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로 회복 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의함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실재적으로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실재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포도나무 교회와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 이 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열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연한 개념에 불과하며 그저 우리의 신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를 따라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우리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저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따르는 종교적인 노력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돌아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이러한 그릇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과 살아 있는 교제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롭고, 옳고, 영원하며, 거룩하고, 사랑하시며,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지말인 이 시기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길을 따라 주와 동행하기를, 개인적인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열정과 열망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열정과 열망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은혜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니다. 아멘.